

‘고성 명태는 행운이다’

제13회 고성명태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고성 명태는 행운이다’라는 주제로 거진항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고성명태축제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3회 고성명태축제를 12개분야 59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축제위원회는 이번 명태축제를 이벤트성 축제가 아니라 명태의 브랜드화를 통한 수익창출의 생산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전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첫째날=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간성 수성제단에서 기관 단체장 및 출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례행사가 열린다.

또 행사장 특설 무대에서는 저녁 4시부터 전문 무속인의 풍어 기원제와 지역 음악동아리 한울사물놀이팀의 식전 공식행사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행사로는 행사장 특별 무대에서 유명 공연팀의 재기 발랄한 오감만족 무대공연인 고성명태와 함께하는 노래세상 행사가 열린다.

또 야간 하이라이트인 전야제를 비롯해, 이날부터 4일간 어선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둘째날= 2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해변 씨름장에서 고성명태 축제장을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씨름 대회가 3일간 개최된다.

오후 2시부터는 행사장내 시식 코너에서 명태로 만든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명태요리 시식회가 축제 3일간 열리며, 저녁 6시30분에는 해군군악대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인기 개그맨 및 트로트 가수가 출연하는 유명연예인과 함께 고성태 홍보는 물론 무대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셋째날= 29일에는 낮 12시부터 명태경매체험과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가족단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족족배 끝기대회가 개최된다.

저녁 6시부터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인 다문화가정의 끼와 장기의 흥겨운 축하 한마당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저녁 7시부터는 행사장 특별무

제13회 고성명태축제 27~30일 거진항 개최

12개 분야 59개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

명태요리 시식회 · 명태경매체험 · 노래자랑



지난달 30일 열린 제13회 고성명태축제 전체회의 모습.

대에서 유명가수와 신인가수가 출연하는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스타와 함께 희망 고성명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에는 오후 4시부터 명태노래자랑 리허설이 개최되며, 저녁 7시부터 명태노래자랑이 펼쳐진다.

박승근 기자

넷째날= 축제 마지막인 30일

최은선씨 복지일자리 부문 최우수상

올해 1월부터 노인복지센터 주 3회 근무 ...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

201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체험수기·우수참여자 공모전에서 고성노인복지센터의 최은선씨(사진)가 복지일자리 부문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대국민 이해증진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은선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2011년 1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고성노인복지센터에 매주 월, 수, 금요일 등 3회에 걸쳐 근무하



고 있다.

최은선씨는 처음에는 어르신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는 것을 힘들어 했지만, 현재는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척척 알아서

해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이자 어르신들의 말동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한 고성노인복지센터의 일은 최은선씨의 걸음걸이나 움직임 등을 좋아지게 만들고 있으며,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관심과 배려,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룬 최은선씨의 수상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음악치료로 장병 사기 충전

육군22사단 ‘연(軟)음악’ 순환 치료공연



육군 제 22보병사단 예하부대 장병들이 장덕한의원 음악치료 공연에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6일 육군 제 22보병사단 예하부대에서 장병들의 긴장이완과 심신안정을 통한 피로회복 및 사기충전을 도모하는 음악치료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치료는 장병들의 밝고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부대와 장덕한의원이 자매결연을 맺고, 분기당 2회 장병 대상 ‘연(軟)음악’ 순환 치료공연을 지원하기로 MOU를 체결한 후, 두 번째 가진 치료 공연이다. 연(軟)음악이란 부드럽고 가벼운 음악을 말한다.

사회자, 가수, 연주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장덕한의원 음악치료팀의 연(軟) 음악치료는 부드러운 음악과 노래, 동작을 통해 신체와 정서의 긴장완화,

규칙적인 호흡과 힘줄의 이완을 유도해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치료 방법이다.

이날 치료는 인사노래, 타너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아, 목동아 등 연(軟)음악 감상과 무용치료 등으로 75분간 진행됐으며, 사단 직할대와 56연대 장병 12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치료 공연에 참석한 최성주 일병(21세)은 “공연 내내 감미로운 현악기 연주와 노래에 매료돼 나도 모르게 고민이나 걱정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했으며, 공연 이후에도 즐거운 마음이 지속되는 등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호 기자



거진 119안전센터

소망요양원 소방안전교육

속초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소망요양원 직원 및 거주노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화재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